

“전남형 자원 동반 기본소득 제도 모델 구축해야”

전남연구원, 기본소득 대응 방향
신안 햇빛연금, 자원기반형 사례
태양광·해상풍력·특산물 등 활용
고향사랑·국비 등 결합 재정 확충

지역소멸과 균형발전 위기의 해법으로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라남도도 태양광 발전과 해상 풍력,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한 자원 동반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남연구원 ‘자원 동반 기본소득

모델의 사례와 전남의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국내의 자원 기반 기본소득 사례를 분석하고, 전남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알래스카, 노르웨이, 카타르 등 자연자원 보유국은 석유·가스 수익을 활용한 영구기금 또는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배당금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수익 분배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남 신안군이 ‘자원기반형 기본소득’을 최초로 실현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한 ‘햇빛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정착 촉진, 고령층 생활 안정, 인구 증가세 전환, 지역 소비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해 주목받고 있다.

전남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 변화와 글로벌경제 동향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이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가능한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남에서는 신안군 사례를 토대로 해상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산업, 특산물 등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다각화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주민소득 창출을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지급을 비롯해 교육·훈련,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과 청년 친화적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지역에 경제·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연구원 김주영 전임연구원과 오병기 선임연구원은 “자원 기반 기본소득

은 지역의 고유 자원을 주민과 함께 나누며,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소득 모델”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본소득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국비 지원 등 외부 자원과 결합한 복합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정부 자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광주시, 하반기 승진 인사 단행… 민선 8기 최대 규모

2급 1명·3급 2명·4급 12명 등 227명
새 정부 안전기조에 안전실장 2급 상향

광주광역시시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급 1명, 3급 2명, 4급 12명, 5급 39명 등 총 227명을 승진 의결했다. 이는 직전 인사 대비 68명 증가한 것으로, 중간관리자 급인 5급과 핵심실무자인 6급 승진은 민선 8기 들어 최대 규모다. ▶관련인사 16면

이번 인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난 대응·안전 강화 기조에 발맞춰 시민안전실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민선 8기 들어 최초 2급 승진자를 배출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인사 정책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자료를 축적했고, 이를 반영한 명부 순위를 최대한 존중했다.

여기에 시정 운영 안정성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 연계를 위한 전문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 특정직렬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공업·시설·방송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승진자를 고르게 배출했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 사업 확산 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청 사업 부서는 물론 사업소 현장 근무자도 이번 승진 인사에 포함됐다.



김준영 국장

2급 승진자인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기획력, 실행력, 소통력, 협업력을 두루 갖춘 실무형 리더로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5대 신활력 벨트, Y-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력 창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3급 승진자는 2명으로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이밖에 △5대 신활력벨트 추진 △민생경제 회복 △재난·위기 대응 역량 강화 △AI 기반 미래산업 성장 △문화·공공시설 확충 △5·18 광주정신 계승 행정 등 민선 8기의 전략 과제를 실행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12명이 4급(서기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상율 인사정책관은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3년 동안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에 발맞춰 광주 발전을 견인할 인재 중용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빛고을장학생 장학증서를 수여한 뒤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디지털무역지원센터 ‘텍스터’ 가동

코트라와 협업… 윈스톱 수출 지원

전라남도도와 코트라(KOTRA)는 24일 나주 혁신도시에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전남 텍스터(deXter)’ 개소식을 열고 디지털 수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개소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정훈 코트라 부사장 겸 디지털무역투자 본부장, 안상현 나주시시장, 김경호 (재)남도장터 대표이사, 이성희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우승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한문철 전남식품수출

협회장, 우현규 남도농수산물수출협회장,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교수진, 수출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텍스터는 코트라와 전라남도도가 협업해 구축한 디지털 기반 무역 지원 인프라로 △수출상품 콘텐츠(사진·동영상) 제작 및 바이코리아(buyKOREA) 상품 등록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유망 바이어 발굴 지원 △지역 디지털 무역 인력 양성 △생생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무역창업교육 등을 지원한다.

전남 텍스터는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중소기업과 남도장터 입점

업체(약 2000개)를 대상으로 상품 촬영, 콘텐츠 제작, 글로벌 플랫폼 입점,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등 모든 과정 윈스톱 지원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대학과 협력해 청년 디지털 무역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희망자에게 사무공간과 컨설팅을 하는 무역창업 허브로도 활용된다.

전남도는 전남 텍스터를 통해 디지털 무역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고, 전남형 수출지원 전략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 마켓(예·아마존·알리바바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 간 거래(B2B)·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기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성장장성 Jangseong

사람의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가족행복센터, 교육발전특구 문불여장성 전통 등
군민이 행복한 장성군